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일 2021. 11. 25

발행인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4호



2021년 문화도시수원이 걸어온 길

수원은 2021년 예비문화도시 단계에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비전을 구체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은 인문실천을 통한 시민문화력 강화 <시민가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마을가치>, 지역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문화선순환 구조 <지역가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 <생태가치> 네 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숫자로 보는 문화도시 수원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631명

 문화도시 수원에 참여한 시민들

55,895명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 한

27개의 사업,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 한

1,579개의 프로그램



1. 도시문화일상학교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스마트폰이 즐거워'

2. 도시문화일상학교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하와이 홀라 댄스'

3. 문화도시 동행공간 '참좋은수다 삼푸바만들기'

4. 문화도시 실천실험 '문화도시 사용설명서'

5. 문화도시 실천실험 '인문실천콘서트' (공연)

6. 문화도시 실천실험 '인문실천콘서트' (사태발표)

7. 문화도시 워킹그룹 '탐조책방 일월저수지'
8. 문화도시 워킹그룹 '탐조책방 일월저수지'

9. 수원형 공공예술실험 '교동예술실험단' 도슨트 투어

10. 수원형 공공예술실험 '교동예술실험단' 예술가와 도시 포럼

11.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 '수문장'

12.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 '수문장'

13. 시민제안 공간 실험 운영 '끈끈한 사이'

14. 시민제안 공간 실험 운영 '자연 그대로의 쪽'
15. 시민주도 R&D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 '가치있게 같이살기' 화단 조성

16.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오픈스튜디오'

17. 찾아가는 문화마중 웰컴 투 수원 '꽃할매들의 이야기 그림책'

18. 찾아가는 문화마중 웰컴 투 수원 '수원시 다양한 연극단'

19.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활동비책' 캘리그래피

20.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활동비책'

(사) 공간문화센터 대표 / 문화도시 수원 자문단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지역문화진흥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컨설턴트

PROFILE

- 경력
부평문화재단 음악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위원,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분과위원장 등 역임
- 주요저서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국토연구원, 2009. 5)
『지역의 재구성』
(알트, 2012, 최정환, 김병수, 강내영 공저)

2021년 문화도시 수원 자문단장 최정환 대표를 만나다

“어린이이 웃을 입은 어른, 수원의 모습입니다”

최정환 문화도시 수원 자문단장님은 공간문화센터 대표입니다. 문화도시로 발돋움 하는 다양한 도시들이 최 단장님의 손길을 거쳤고, 또 도시재생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단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주로 문화도시 정책현장에서의 문화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을 돌며 컨설팅 자문도 하고요. 90년대 인사동 마을 만들기 운동과 북촌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역의 장소성을 지키고 재생하는 현장활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홍대 앞에서 클럽문화 활성화와 클럽데이를 이끌기도 했어요.

문화도시 수원의 자문단장을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수원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언젠가는 수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역사나 도시 제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가장 큰 계기는 고인이 된 이채관 대표와의 인연입니다. 이채관 대표와는 2000년대부터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제가 밤의 문화를 이끌었다면 이 대표는 낮의 문화를 이끌었죠. 많은 영역에서 역할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수원과의 인연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이채관 대표와 연이 닿아 있던 많은 문화계 인연들이 모여 고인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 제가 맡은 것이 바로 문화도시 수원입니다. 처음에는 이채관 MP의 자리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만들어 둔 그림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문단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단장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채관 MP가 만들어 둔 그림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을 예로 들자면 지금 수원은 집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입주민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예비문화도시인 수원은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분류하고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체화가 됐나요?

일단 이채관 MP가 만든 인문도시 수원의 핵심가치는 ‘수원형 인문’, ‘도시다양성’, ‘지속가능성’ 이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4개 가치로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시민가치', '마을가치', '지역가치', '생태가치' 입니다.

시민가치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의 자리매김을 뜻합니다. 마을가치는 수원이 이전부터 이끌어 왔던 마을 르네상스 사업 등의 흐름을 문화도시에 수용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역가치는 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화성 등 여러 지역 자원을 시민들의 일상속에 끌어 들여야 합니다. 생태가치는 수원의 생태교통 경험에서 가져온 가치입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환경적 실천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인문도시주간을 평가하신다면?

인문도시주간은 인문학 주간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즉 기관이 만든 행사에 시민들이 수동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기획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행사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앞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사람들이 인문도시주간을 축제로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축제를 즐겨준다면 수원 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수원은 문화도시 선정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와 아주 다른 특징을 가졌습니다. 일단 규모가 큼니다. 120만 도시는 광역급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권역별로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작은 도시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광역시처럼 자치구별로 나뉠 수 없기에 모든 수원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보면 어른이 어린이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원은 문화도시가 가져와야 할 문화분권, 문화자치라는 것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생활권역들을 문화로 어떻게 촘촘하게 이을 수 있고 그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은 필연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광역시처럼 각 자치구별로 대표자가 나서서 이끌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진단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활권역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같은 구 안에 있는 광고와 영통이 서로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수원의 문화도시는 바로 이런 갈등을 문화로 풀어나가며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너머’ 수원 인문도시포럼의 맛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한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외롭고, 홀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더 외롭고,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외롭다고 한다. 이번 포럼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외로움’이었다. 120만의 붐비는 도시 수원에서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왜 외로울까? 포럼 발제로 참여한 김찬호 선생은 ‘고립’을 이야기한다. 내가 아프고 힘들때 누가 나를 돌보지? 가난하고 생활이 힘들면 주거 조건도 안 좋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도 끊어져서 고립은 심화된다.

또 다른 발제자 김만권 선생은 인터넷을 통한 과잉 접속의 시대에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청할 이가 주위에 없는 상황에서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외로움이란 “다른 이들과 가까이할 수 없다는 감정이자 심리상태”라고 한다. 포럼 첫날 지리학자 임동근 선생은 현대의 도시환경이 자신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물기 위한 ‘마찰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립이 심화된다고 하였다. 기억, 관계, 물질자산, 가족이나 사회의 연결고리와 보호망이 많이 존재하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동네, 교우관계, 지역사회의 작동..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면 ‘고립’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만권 선생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자아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아는 고독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아의 정체성은 나와 동등한,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동료들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상실은 자신, 타자, 세계를 동시에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김찬호, 임동근, 김만권 세 발제자의 문제의식은 연결되어 있었다.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이웃에게 길을 묻는 포럼 기획의 문제의식이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사례 발표에 나선 **매탄동 매화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원은선 센터장은 ‘골목의 부활’이라는 활동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맞벌이 부모 대신에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종일 돌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위해 골목에서 노는 환경에 주목한다. 아이들의 개성과 능력을 알아봐 주고 아이들 스스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다. 돌봄을 돌봄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동네와 골목에서 마주치는 활동과 관계로 보고 있다니!

이제는 모두 사라졌을 것으로 여겼던 **마을공동체 미디어**도 수원에는 깊이를 더한 형태로 살아 있었다. 개인 미디어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미디어 기능보다 마을에서 미디어를 매개로 가능한 연결과 참여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 단순 참여에서 기획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수원 평생학습관은 여기에 더해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구체적 학습 활동의 공유를 동네에서 가능하도록 돕는다. 앞서 김찬호 선생이 낯선 사람들끼리의 ‘느슨한 연대’ 활동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좋은 활동이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학습관은 매우 입체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학습 생태계를 이리저리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각자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배움 자체를 마주침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지도록 기획한다는 느낌이 확연했다. 발표한 사례들만 보아도 ‘고립’의 문제를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 성장에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 활동그룹이 많구나 이런 힘이 크고 오래된 도시의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찬국 / 수원 공공예술 예술감독

현재 옥상낙원DRP 운영자로 활동하며, 나주시 문화도시 조성센터장,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생태문화축제 “우리의 좋은 시간” 기획 및 감독, 서울 혁신파크 외부공간 조성 겸 총괄 디렉터, 공유공간 공공미술 - 디자인 불능 (서울시, 서울 디자인 재단), 영토해킹(고흥 거금도, 영광 법성포, 진해 창원시) 등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PROFILE

도시의 나침반, 스스로의 나침반

시민기획단 ‘나침반’이 이번 인문도시포럼을 기획했다고 한다. 촘촘하고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지만 기획 의도가 명확하게 살아 있는 이런 기획을 하는 그룹의 내공은 어떻게 다져졌을까?

이분들은 2015년 평생학습관의 “세상과 대화하는 과학”이라는 읽기 모임에서 출발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 뿐 만 아니라 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성장했다고 한다. 연구 공동체가 아니라 학습관에서 만난 시민들이 긴 시간 활동을 같이 한 힘은 학습 이상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피크닉도 가고 명절 때도 뭉쳐 놀았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당연하지만 인문의 능력도 몸에서 나오고 몸에 새겨지는 과정이 쌓여야 되는데 쌓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고독’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수원 인문도시포럼을 들어보니 수원 사람들은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대안을 찾으려는 지혜로운 활동을 줄곧 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과 활동이 활발하면 도시는 살 만한 좋은 도시가 될 것인데 크고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람과 공간이 섞여 있는 거대도시 수원에서 이런 활동이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포럼은 수원 문화재단에서 ‘동행공간’이라고 지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B’side에서 진행되었다. 이 공간 1층은 카페이고 지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데 청소년 활동과 취향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공간이라고 한다. 상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기능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다. 느슨한 연대와 마주침, 약한 관계에 맞춤형 공간이다.

올 해 같이 해보겠다고 모인 공간만 20곳이 연결되었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너무 좋다.

가능성 덩어리다. 이 공간들은 장르와 영역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운 디테일이 있다. 복합성도 있고 복잡성도 있다. 여성과 장애가 중심인가 하면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예술하는 팀들이 운영하면서 ‘지구인의 놀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년과 주거, 공유공간에 관심 있는 공간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청소년, 책, 취향, 대화, 일기와 쓰기, 노인, 아동, 여가 등등의 주요 사업들이 있지만 지역의 구석구석에서 이전과 다른 형식의 마주침이 가능한 공간들이다.

‘나침반’과 같은 시민 기획자 그룹의 활동이 기꺼이 공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공간들과 만났을 때 더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마주침’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너머’

아마도 여기에 예술이 있다면, 예술작품이 아니라 예술의 스피릿, 예술하는 태도가 있다면 ‘여기’를 넘어서는 ‘너머’를 기억하기 좋을 것이다. ‘너머’는 어떤 답, 어떤 실체가 명확한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했어도 감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으로 온다. 상상하라 마음껏 상상하라 그러나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탐구심이 솟구치는 데에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것 자체로는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 해도 조금은 낯설고 쑥스러운 마주침들 안에서 불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늘 조금씩 의도적이어야 한다. 의도적인 일상이어야 한다. 바로 곁에 있는, 아니 내 몸 안에 이미 있는 타자처럼 있어야 한다. 정해진 답만 찾아 다닌다면 고립에서 벗어날 ‘고독’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아마도. 엉뚱하고 내밀하지만 유쾌한 자율공간이 있고 너그럽고 수다스러운, 저지를 전문가들, 그 중에는 사려 깊고 냉정한 정돈 전문인 사람들이 어찌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저기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많이 품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독을 품은 양귀비처럼 하늘하늘 아름다운 도시를 꿈 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B’side의 포럼 장소에 갔더니 일반적 무대와 다르게 객석인지 무대인지 애매한 배치에 붉은 주단이 깔린 바닥에 발제자들의 의자는 캠핑용으로 놓여 있었다. 좀 어설프다. 그래서 그런지 어색하면서 편안했다. ㅎㅎ. 인문도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색한 시도. 정답은 태도에 있으니까.

공공예술, ‘추진’인가 ‘추구’인가?

공공예술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공공(公共)’이라는 말처럼 오해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이라는 말은 한때 저 1970년대 국민교육헌장에 등장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가치로 왜곡되었다. 2000년대 초 처음 공공예술이 등장했을 때 ‘벽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된 것도 공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전국에 붕어빵 같은 ‘벽화마을’들이 여럿 등장했고, 유명 벽화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는 공공예술이 시민 참여형 버전 공공미술로 전환했지만, 행정이 예술가들을 동원하고 시민을 대상화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예술은 여전히 어렵다. 공공예술의 세 주체인 예술가-시민-행정이 생각하는 공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예술은 무엇이고, 공공하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유효하다. 어쩌면 그것이 (공공)예술의 운명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공공예술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예술은 질문이 질문을 낳는 방식으로 무엇이 ‘공적 행복’(한나 아렌트)인가를 꾸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착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술가의 개입이 아니고, 행정이 주도하는 관제(官製) 미학 또한 공공예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공론장에서 말해야 한다.

도시의 ‘리듬’을 바꾸는 공공예술

하지만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능력’(수전 섀넌)은 얼마나 힘이 센가. 좋은 예술은 그런 힘이 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도시의 ‘리듬’을 바꾼다. 여전히 공공예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 가운데 공공예술을 중요한 도시 정책으로 생각하며 구현하려는 도시는 많지 않다. 그만큼 공공예술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수원문화도시센터가 수원공공예술 작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한 <도시충·동 예술충·동>(예술감독 박찬국)은 시민이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이며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 프로젝트였다. 나는 특히 시민과 예술가들의 ‘충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펍 흥미로웠다. 올해 수원공공예술은 인구 120만 명이 사는 광역시급 수원이라는 도시의 소리, 냄새, 이야기에 집중했다. 시민기획단인 ‘도시충동단’이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말하면, ‘기록 생산자’와 ‘흥미로운 전달자’로 나뉜 예술가 그룹이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시민기획단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작업 시간이 촉박해 ‘에스키스’(esquisse)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

참여 예술가들은 국도 1호선이 지나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탐구하면서 도시를 탐색하는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예술언어로 해석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연하며 ‘협동운동’을 제안하고(웁스양), 노인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달했다(서현덕). 광고 신도시를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한 주부의 눈으로 담아내고(김형아), 비행기 소음이 여전한 서수원 지역 ‘비행기 소음 지도’를 제작했으며(박김형준), 도시 지표면을 ‘살갓’으로 해석한 사진 작품들을 전시했으며(진 인이 나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화성으로 인해 자기의 땅에서 추방되는 독거노인들을 응시하고자 했다(김월식).

지속가능한 공공예술을 위하여

나는 수원공공예술의 가장 큰 성과는 ‘갤러리’가 아니라, 교동 일대 마포생고기를 비롯한 가게 등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전시한 실험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공예술의 의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술의 문제로 자주 거론되곤 하는 ‘속도’와 ‘시간’이 이번에도 문제였다. 특히, 예술가 그룹이 시민충동단과 대화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예술가-시민과 시민-예술가들이 서로를 ‘충동’질하며 때로는 ‘충돌’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결국, 수원공공예술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31일 아트블랑켓에서 진행된 공공예술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 시간>에서 미술평론가 김종길은 “공공예술은 하나의 품(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새로운 공공예술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맥락과 통한다. 수원 시민들 또한 성숙한 눈높이로 공공예술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발효(發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수원공공예술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질문 못지않게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술가-시민과 시민-예술가들이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려는 행정의 마인드는 말할 나위 없다. 2022년, 나는 여전히 수원의 공공예술 실험을 보고 싶다.

고영직 | 인문도시주간 기획위원 |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경향신문 ‘인생+’ 칼럼 기고, 서울시민대학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 《아르떼365》웹진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FILE



수원 로컬리티의 현재와 미래



천인우 PQR 크리에이터스
레이블실장 인터뷰

지난 인문도시주간 중 메타버스 공간 ‘게더타운’에 수원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살기에 수원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곳 수원에 대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죠. 이 자리를 주도한 사람은 PQR 크리에이터스 레이블의 천인우 실장님입니다. 천 실장님이 생각하는 행궁동 로컬리티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PQR 크리에이터스 레이블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보통 레이블이라는 단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쓰곤 하는데요. 저희는 브랜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궁동에 있는 수제 햄버거집 ‘오피큐알’을 비롯해 신도시 양조회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그저 로고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 주인의 세계관 안에서 그 가치관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도시주간 중 진행된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살기에 수원은 어떤 곳인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여한 크리에이터들은 제가 고심해서 섭외한 사람들이었고요. 사실 발표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로컬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발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행궁동의 핵심 콘텐츠를 가지고 이곳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크리에이터고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행궁동의 로컬리티 상황은 어떤가요?

“5년전 이곳을 부흥하게 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자본에 밀려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의 오래된 특성을 간직한 슈퍼마켓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포토부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개성적이고 자본중심적인 세계관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크리에이터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전후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든 것은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함과 캐릭터성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리면서 자본이 이곳을 찾고,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소위 ‘행리단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자본 잠식이 가속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행리단길’이라는 단어는 금기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경리단길’에서 왔는데, 경리단길의 말로를 따라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비판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던 예전과 달리 다분히 물개성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본만 있고 감수성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지속해 나간다면 침체가 오더라도 완전히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오는 12월 쯤 ‘요새’라는 매거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또 크리에이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무기 삼아 만들어낸 무가지입니다. 발행 뿐 아니라 온라인 SNS를 통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크리에이터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제가 엄선한 5명의 크리에이터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번 호 발간으로 문화적 선전포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리티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 나만의 가게, 나만 알고 싶은 경험 등 문화소비를 좀더 드러냈으면 합니다. 누군가 가봤던, 또 인스타의 셀러브리티가 찍은 뒷배경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셀러브리티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다양성 ‘공존테이블’ 현장을 가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 ‘웰컴 투 수원’ 공존테이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질문을 접합니다. 그리고 매번 해답을 찾기 위해 진땀을 흘리곤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올바른 질문인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실험목장 AGIT에서 진행된 ‘웰컴 투 수원’ 공존테이블은 서로 ‘질문’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출신 지역, 민족과 인종, 신체 및 정신, 성별, 그리고 그 모두를 아우르는 ‘문화다양성’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할 수 있는가?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으로 평등하게 나누는 대화

공존테이블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인 최예인 대표의 진행으로 운영됐습니다. 최 대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라는 제시어에서 생각나는 것을 함께 연상하며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눈, 눈사람, 호빵 등 서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제시어는 ‘차별’. 이번에는 차별 하면 떠오르는 ‘질문’을 나눠 봤습니다. ‘군가산점 차별은 과연 적절한가?’ 라는 질문, 또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차별인지 아닌지?’, ‘일상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별(사회적, 개인적, 문화적, 국가적) #고정관념 #인권과 존엄성 #문화다양성



ORID 통해 깊이 통찰하는 대화를 이끌다

이날 진행된 공존테이블은 ORID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ORID는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Objective), 객관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Reflective), 핵심의미와 시사점을 파악하는 단계(Interpretive),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단계(Decisional)로 이뤄져 있죠. ORID 질문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대화를 이끌어 줍니다. 개인 간의 대화 뿐 아니라 그룹 퍼실리테이션 방법으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및 지난 사건에 대한 회고를 위한 회의 진행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공존테이블은 ‘정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찾기 위한 자리였죠.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런 점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생각과 질문을 나누고 앞으로의 시민 활동에 대한 고민이 되는 자리라고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도 말했죠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참여단체에서 다시 문화다양성에 대해 ORID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나름의 정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시민들과 질문을 나누겠지요. 이 질문들은 문화도시 수원으로 나아가는 큰 한걸음이 될 겁니다.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시민 한 마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문화도시 수원에 함께 한 시민 여러분의 한 마디를 공유합니다.

• 도시문화 일상학교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 지은정 네모의꿈, 삭막할 수 있는 아파트공간에 주민이 강사로, 수강생으로 참여하여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으로 시민 스스로 만들고 향유할 수 있어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다운 발상에 한자리 함께해서 뿌듯합니다.
- 김재섭 모르는것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 문화다양성지원 웰컴 투 수원

- 권예진 군공항을 빨리 이전하여 소음 없는도시 균형 발전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장원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에 따스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권지영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감사합니다
- 김인선 서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도시 수원 최고예요!!
- 김숙경 타도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문화도시 수원^^
- 박미경 수원화성의 금지와 자부심이 수원의 미래
- 최상은 인문학의 도시 수원. 숨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일반인을 위한 문화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지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 시민맞춤형 공연활동 지원 도시공감버스킹

- 수니 Invites 내 고향 수원, 내 인생은 Jazz 음악의 29마디 줘!
- 김순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원 시민의 문화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음새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전통국악예술로 희망의 소리를 널리 알릴 문화의 장을 마련해준 문화도시 수원! 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그 날 까지 희망의 북을 울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 한효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와주세요~

• 문화도시 동행공간

- 비사이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화이팅!
- 스토리블록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곳, 아이들이 성장해서 마을로 돌아오는 곳
- 김송현 "문화도시 수원"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을 늘 응원합니다.
- 이명윤 시민들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가지를 기획 하여 활동하게 해 주는 수원문화재단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수원 입니다^^
- 인도래작은도서관 담당 송은정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창작활동
- 정다겸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생각이 담겨진다. 다르기에 아름답고, 설레는 문화의 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수원

• 2021 공간실험 플랜B라이브러리 프로젝트

- 유신애 예술적 방향을 추구하지만 비-주류적 위치에 놓여 있는 대안적 예술 활동, 비상업적 예술, 독립예술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 오! 인문도시 포럼

- 가을이오면 내가 누구든 어떤 처지든 환대 받는 문화도시, 수원 시민이 함께 만들어요.
- 음악처럼 도시의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는 일 없이 문화도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별그림자 이웃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길~~

• 시민주도 R&D사업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 송은선 미술관 도슨트의 인연으로 모인 3인의 솜털씨앗이 문화재단의 한 사업으로 모여 즐거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수원 시민이 참여하여 수원 문화 시민의 긍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 이정원 1.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 강의안에서 논제를 찾아 토론하는 소규모의 토론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2.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 이현호 많은 시도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노력에 감동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적인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한번의 찬사를 보냅니다. 수원시민이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에 대해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 김연정 문화, 수원에 물들다
- 김양미 수원 시민 모두 1인 1 문화정책을 펴낼 수 있을 그 날 까지 함께 나가요^^
- 이진희 시민의 활동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이었다
- 김문옥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수원!!!
- 차미정 대화는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 박미희 수원에 이사와 건강하고 즐거운 모임을 할 수 있게 해 준 수원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친척보다 중요한 이웃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준 황지아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 김민지 마음껏 꿈꾸는 즐거운 문화도시수원 :)
- 황동준 문화의 향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심경순 손잡고 함께 같이 가자
- 익명 시민이 주체로 변화되는 도시
- 김선경 문화도시 수원~포에버^^
- 정정균 지난 인문도시주간 행사 보고 감동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고 향후 이런 내용이 공유되어 동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의 휴먼 네트워크 구성 추진 요청 드립니다.
- 김상래 따로 또 같이 힘 쓴 시간, 문화도시 수원은 이루어집니다.

• 조금 다른 여행

- 장동현 2021인문도시 주간을 통해 펼친 다양한 시도들, 문화가 일상에 더 다가올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민협의체 수원 나우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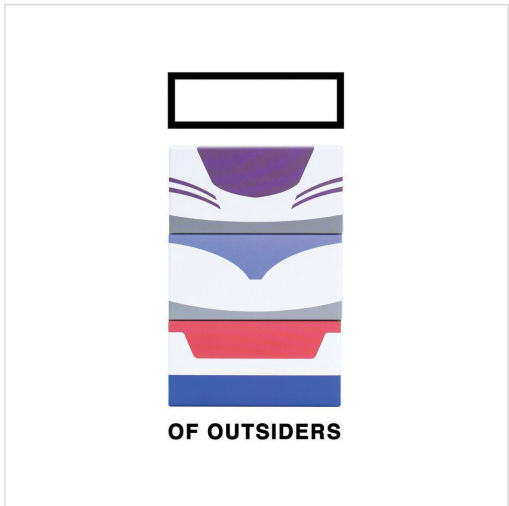
- 박래현 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속의 삶
- 이윤숙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하는지 작년에 지인한테 소개받고 씨티메이커스 활동을 하였다. 우리 모임 다섯 명은 매주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가까운 풍경과 맛집을 찾으며 모두 좋아했다. 사진을 찍으며 지금도 내년에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한다. 가까운 행궁을 돌며 좋은 프로그램을 외부에 소개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달파니 - 느림 속 즐거움

마음을 담아 가치를 물들이는 자연 발효 쪽 염색 · 섬유공예 브랜드. 자연과 사람에 이로운 자연 발효 쪽 염색 제품 제작과 쓰임, 그리고 쓰임 후를 생각하는 섬유공예 활동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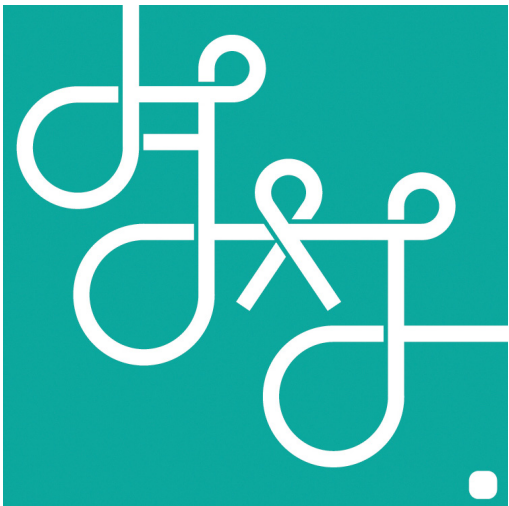
[블로그] blog.naver.com/eusnail



오브아웃사이드스

모든 일상여행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기차를 타고 일상을 여행하세요”를 모토로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 중. 한국의 기차에서 영감을 받아 여섯 종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 출시. 현재는 수원을 모티브로 새로운 카메라와 업사이클링 서비스 준비 중.

[인스타그램] [@of_outsiders](https://www.instagram.com/of_outsiders)



영청

우리 생활에 녹아드는 단청을 꿈꾸는 영청. 인간을 복되게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우리 삶에 녹아드는 디자인으로 구현하고, 단청을 통해 한국의 전통색감, 문양,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공예 기반 워크숍,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하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youngcheong9092](https://www.instagram.com/youngcheong9092)



꿈틀협동조합

수원시에서 발달 장애 아동 치료실을 운영하며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화성 참기름과 들기름, 꼬꼬한끼 순살 닭갈비, 꿈틀X커피가이 커피티백을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은 발달장애 아동 치료실 운영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

[인스타그램] [@ccumtlfood_](https://www.instagram.com/ccumtlfood_)



세쥬씨 (CESJOURSCI)

한국인의 시선으로 신선하고 매력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미를 담아내는 패션 스튜디오. 아프리카 패션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의 절제된 무드의 융합을 추구하는 패션 제품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감을 얻은 범 패션·문화적 콘텐츠 제작 중.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아티스트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진행 중.

[인스타그램] [@cesjournsci_official](https://www.instagram.com/cesjournsci_official)



흙파리

흙과 농장에서 자라는 귀여운 과일과 채소, 동물 친구들을 다양한 문구제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보고만 있어도 귀여움이 물씬 느껴지는 다양한 캐릭터를 스티커, 엽서, 키링 등으로 만나볼 수 있음.

[인스타그램] [@_soilfarm](https://www.instagram.com/_soilfarm)



드로잉 스튜디오

“그림과 만듦으로 아이디어를 그리다” 그리는 것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언니와 동생이 작품을 제작하며 느낀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시작한 브랜드. 드로잉 스튜디오의 그림과 만듦이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창작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진행 중.

[인스타그램] [@draw_ing_studio](https://www.instagram.com/draw_ing_studio)



김가지(괴물은 몬스터)

<김가지>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 북클럽이나 시 쓰기 모임, 니들펠트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중. 평소 낙서하며 즐겨 그렸던 괴물을 펠트 인형으로 만들며 <괴물은 몬스터>라는 브랜드 운영 중. 좋아하는 것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수작업과 소규모 제작을 지향하여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과 수고를 담아 제작 중.

[인스타그램] [@kazee_kazee](https://www.instagram.com/kazee_kazee)